

[칼럼] 문학 시간 단축

2022-07-29
서화 [1157521]

[스펙]

- 2021학년도 수능 원점수 98점, 백분위 100 (상위 0.1%)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화법과 작문 만점
-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와 매체 만점 (전국 59명)

시간이 모자라다.

여러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읽는 속도 자체를 빠르게 만들거나,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근데 전자는 현실적으로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라는 거냐.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후자가 있잖아요.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본 칼럼은 특별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 본질적이고 단순한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영역은 문학입니다.

문학이야말로 시간 단축의 꽃이죠.

빠르게는 15분,
아무리 늦어도 25분 안에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칼럼의 목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운문 지문은 최대한 간단하게 읽는다.

운문, 특히 현대시는 <보기>를 통해 해석을 제공해줍니다.

우리의 역할은 직접 해석을 하는 게 아닌,
<보기>를 참고하여 해석을 평가하는 것이죠.

<보기>가 없는 시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최소한의 분위기만 잡고 문제로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고전시가? 해석 다 못해도 괜찮아요.
주된 정서가 무엇이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만 파악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빠르게 치고나가면서 읽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뚱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
가자꾸나

본 작품은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던 '향아' 지문입니다.

저는 이 지문을 읽으면서 딱 두 개만 파악하고 넘어갔습니다.

돌아가자고 하는 대상들을 맥락상 동의어로 엮었고,
이와 대비되는 것들 또한 맥락상 동의어로 엮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시 하나 읽는 건 30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EBS 연계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향성도 잡습니다.

운문의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분위기만 기억할 정도로 반복해두는 거예요.

3-4번만 읽어도 이 정도는 가능하니,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일 겁니다.

2. 당연한 표현에서 고민하지 않는다.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등등...

'시'라면 당연한 내용들을 고민하면 안됩니다.

3. 허용 가능성 평가 1 : 그럴 수 있지.

근거가 있다면 허용 가능하다.

이것은 국어 전반을 아우르는 대원칙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원칙은 문학에서 빛을 발하죠.

애초에 문학은 강사들마다 해설이 갈리는 부분도 있을 만큼,
주관적인 색채가 매우 강한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강사가 아닌 학생이고,
문제만 풀면 장땡이잖아요?

해설이 목적이 아니라면 행동은 단순해집니다.

그러니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럴 수 있지~'하면서 유연하게 사고해야 해요.

4. 허용 가능성 평가 2 : 절대 그럴 수 없어.

근거가 없다면 허용 불가능하다.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하지만 사뭇 다릅니다.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한 건,
실전에서 완벽히 소거해내기 어려운 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설 쓰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또 단순해지죠.

세모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답만 찾는 거고,
답은 명확할 테니 세모 치는 걸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한 건 예시를 함께 보시죠.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
주는군.

맥락상 미개지는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들과 동의어입니다.

근데 확장이라는 건 기존의 범위 + @ 잦아요?

기존의 범위와 기존의 범위 + @는 분명히 다르죠?

이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근거가 있네요?

이럴 때는 '절대 그럴 수 없어.'를 외치면서 X 표시 해주시면 됩니다.

5. 산문의 본질은 내용 이해이다.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분명 있을 겁니다.

강의든 독학서든 요즘 훌륭한 교재들 많잖아요?

그 독법을 적용하면서 읽되, 중요한 건 내용 이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여 읽거든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편집자적 논평 등도 체크해야겠지만,
본질은 내용 이해를 잘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가령 이번 6모 19번 같은 문제 말이에요.

여씨가 부끄러워했다는 인물의 심리를 바로 출제했잖아요.

이는 여씨의 모략이라는 사건과 여씨라는 인물에 주목해서 짚어낼 수 있던 선지였어요.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읽어냈어야 합니다.

6. 문학은 비문학이 아닌데, 문학 선지는 비문학이다.

'문학의 비문학화'라는 말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 이상 문학은 감상과 이해만으로 뚫리지 않는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학 선지를 엄밀하게, 비문학 풀 듯이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단 처음부터 그러라는 건 아니고,
1번부터 5번까지 쪽 둘러봤는데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일 때만요.

②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다음은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34번 문제 2번 선지입니다.

한 번에 읽으려고 하면 텅-하고 글이 튕겨나가는 느낌을 받을지도 몰라요.

엄밀하게 끊어서 읽어봅시다.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 끊을 수 있는 수단으로 나눠서요.

그러면 결핍된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걸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말은 결핍된 속성의 긍정/부정을 따져야 함을 의미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힌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다시 문학으로 돌아와서 허용 가능성에 입각해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7. <보기>와 상충되는 선지를 먼저 체크하자.

저는 <보기>만 읽고도 풀긴 하는데,
이건 위험하다고 안 쓸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이번 6모 보기만 봐도 그래요.

31번 <보기>에서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라고 표현했는데,
뜬금없이 '일관되게 초점화'? 뭔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외치고 싶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선지에서 답이 안 보이면 <보기>에서라도 답을 찾아야 해요.

선지에서 답이 안 보이면 <보기>로 대응해서라도 푸다는 것, 기억합시다.

8.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라!

[A]~[E]로 제시된 부분이라던가,
ㄱ,ㄴ으로 밑줄 친 부분이라던가...

부분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읽으면서 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사고를 이원화해야 합니다.

기본 포지션은 산문은 내용 이해, 운문은 분위기 파악인데
문제 풀 때만큼은 잠시 그 사고를 STOP하고 문제를 풀고 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 중에 가장 실전적인 팁일 겁니다.

처음에는 버벅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출을 통해서 생각을 둘로 쪼개서 푸는 연습을 지속한다면,
그게 체화됐을 때 여러분의 속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애초에 돌아갈 시간을 우리는 풀면서 여유 시간으로 확보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8가지의 방법을 적용한다면,
문학에서도 충분히 시간 단축을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문학은 그 어느 과목보다도 기출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기출만 반복하는 게 가장 최선의 학습이니,
외울 만큼 보셔도 좋습니다. 아니, 외울 만큼 보셔야 합니다.

문학은 결국 누가누가 익숙하냐의 문제이고,
이 익숙함은 반복한 경험에서 나옵니다.

8가지 방법을 기출에 적용해보시고,
실모로 시간 관리 연습하시고,
그렇게 해서 꼭! 문학 시간 단축을 쟁취해내시길 바랍니다!

[칼럼] 매체 시간 단축

2022-07-29
서화 [1157521]

[스펙]

- 2021학년도 수능 원점수 98점, 백분위 100 (상위 0.1%)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화법과 작문 만점
-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와 매체 만점 (전국 59명)

시간이 모자라다.

여러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읽는 속도 자체를 빠르게 만들거나,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근데 전자는 현실적으로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라는 거냐.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후자가 있잖아요.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본 칼럼은 특별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 본질적이고 단순한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영역은 매체입니다.

매체는 정말 사람에 따라 극단적으로 속도 차이가 나는 영역입니다.

저는 이번 6모? 매체 푸는 시간 딱 3분 걸렸습니다.

국어만 하더니 미쳐버린 거 아니냐고요? 아직은 아닙니다.

매체도 문학과 비슷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단순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사고의 이원화 - 읽으면서 문제를 푼다.

문학에서 말했죠?

ㄱ~ㄴ, a~e, [A]~[E] 같은 건 읽으면서 풀어버리라고.

매체도 동일합니다.

근데 매체는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넘쳐나요.

게다가 매체는 내용 이해도 까다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고의 이원화도 더 쉬워집니다.

내용 읽다가 잠깐 선지 쓱 판단하고 오고,

다시 내용 읽다가 선지 판단하고....이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보도의 주요 제재를 부각하였다.
- ② ㉡은 기자의 발화 내용을 의문형으로 요약 진술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③ ㉢은 기자의 발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여 정보의 구체성을 강화하였다.
- ④ ㉣은 관계자의 발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완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 ⑤ ㉤은 이후에 방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보조 용언 '있다'를 사용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표현하였다.
- ② ㉡: 보조사 '도'를 사용해 제도의 장단점을 아우르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였다.
- ③ ㉢: 감탄사 '자'를 사용해 시청자의 해당 누리집 가입을 재촉하려는 의도를 표현하였다.
- ④ ㉣: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해 제도 시행 관련 정보를 관계자가 언급할 것이라는 추측을 표현하였다.
- ⑤ ㉤: 의존 명사 '만큼'을 사용해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점이 이어지는 내용의 근거임을 표현하였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A]~[E]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수용자의 특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실시간 인터넷 방송은 영상과 채팅의 결합을 통해 방송 내용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뤄진다. 예전대 수용자는 방송 중 채팅을 통해 이어질 방송의 내용과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미 제시된 방송의 내용을 추가, 보충, 정정하게 하는 등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생산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 ① [A]: '빛세종'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 내용을 보충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② [B]: '햇살가득'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밝힘으로써 진행자가 생산할 내용을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 ③ [C]: '꿈꼬미'는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의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④ [D]: '아은맘'은 제시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진행자가 오류를 인지하고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 ⑤ [E]: '영롱이'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진행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와아, 벌써 읽으면서 3문제나 풀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발체독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신속성을 모두 잡는 방법이지요.

2. 매체의 본질 : 일대일대응, 더 효율적으로!

매체는 사실 하나씩 대응해보면 다 풀리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끔 고민해야 합니다.

42. (가)를 시청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대화방의 내용이다.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모둠 과제방

오늘 과제로 '경제 뉴스 콕'을 보고 뉴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해 보기로 한 거 알지? 각자 한마디씩 해 볼까?

학생 1

세제나 화장품의 용기를 다시 채워 쓴다고 얼마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 그것 보다는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

학생 2

작은 실천도 의미가 있지. 다회 용기 사용이나 전자 영수증 받기같이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었어.

학생 3

과도한 탄소 배출 때문에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점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알려 준 점에서 의미가 있어.

학생 4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에 대한 방법을 알려 주었으면 좋았겠어.

학생 5

기존에 실시해 온 탄소 포인트 제도도 있나 본데 그 제도는 명칭만 언급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새로운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

- ① 학생 1은 보도에서 제시한 실천 항목의 효과에 주목해 제도의 실효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② 학생 2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 주목해 제도의 실천 용이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③ 학생 3은 제도의 시행이 현재의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보도의 시의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이번 42번 문제, 지문 안 읽고도 풀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선지와 대화방 내용만 일대일대응하면 풀리는 문제였죠.

이렇듯 문제를 풀 때는 '지문으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럴 필요 없는 문제도 매체에는 꽤 있거든요.

43. (나)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제시된 제도의 실천 항목 중 청소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제시하였군.
- ② (가)에 제시된 누리집 주소와 함께 QR코드를 제시하여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추가하였군.
- ③ (가)에 제시된 제도의 개인적 혜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돈과 저금통의 이미지를 활용하였군.
- ④ (가)에 제시된 가입자 증가 현황 이외에 증가 원인을 추가하여 제도 가입자가 지닌 환경 의식을 표현하였군.
- ⑤ (가)에 제시된 수용자보다 수용자 범위를 한정하고 생산자를 명시하여 메시지 전달의 주체와 대상을 표현하였군.

43번도 (나)만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와 하나씩 일대일대응하면 됩니다.

심지어 (나)는 포스터니까 그림과 일치하는 내용 찾기네요...!

이게 어려운 건가요? 절대 아니죠.

매체는 심플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으로 80%는 빠르게 풀어낼 수 있고, 남은 20%만 정석적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기억합시다.

사고를 이원화하여 읽으면서 문제를 푼다.

일대일대응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지문으로 돌아갈지, 어디를 읽을지 파악하고 움직인다.

한 줄 요약 : 뭘 하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서화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칼럼] 독서 시간 단축

2022-07-24
서화 [1157521]

[스펙]

- 2021학년도 수능 원점수 98점, 백분위 100 (상위 0.1%)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화법과 작문 만점
-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와 매체 만점 (전국 59명)

시간이 모자라다.

여러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읽는 속도 자체를 빠르게 만들거나,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근데 전자는 현실적으로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라는 거냐.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후자가 있잖아요.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본 칼럼은 특별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 본질적이고 단순한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영역은 비문학입니다.

아, 비문학 어렵지요.

솔직히 말해서, 평범한 지능으로는 17문제 다 못 맞힐 수도 있습니다.

정확도가 100%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서에서 35분 이상을 쓰는 이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비문학에서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

사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애초에 잘 읽고 잘 풀면 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잘 읽고 잘 푸는 것은 무엇인지 보여드려야겠죠?

바로 시작합니다.

1. 지문의 화제를 중심으로 가볍게 독해하라.

이 문장이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1. 지문의 화제를 중심으로 독해하기.
2. 가볍게 독해하기.

지문의 화제를 잡아야, 지문이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독해하라는 말은, 정보를 기억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

아니 기억을 해야지 않겠냐고요?

아뇨, 어차피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한 정보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납득한 정보까지 기억한다?

정상적인 두뇌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뭐다?

매체 칼럼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효율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 자체가 아닌 정보의 위치를 기억해야 해요.

이번 비타민 K 지문 어려웠나요?

비타민 K의 응고와 원활한 순환이라는 화제만 잡고 그걸 중심으로 끌고 내려갔다면,

수월하고도 빠르게 읽을 수 있던 지문이었습시다.

무슨 말을 하는지 빠르게 짚어내려오기만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찾는 거죠.

그리고 찾을 때는, 당연히 기억한 정보의 위치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찾고요.

이렇게 푼다면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이해는 최소한으로, 지문이 시키면 한다.

제가 아는 평가원의 글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신호를 제시해줍니다.

그 시그널에 맞춰서 독해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해야 한다면 정보를 충분히 줍니다.

이번 이중차분법 지문을 떠올려보세요.

과연 평행추세 가정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문제가 풀리던가요?

4문단의 내용을 엄밀하게 훑었어야만 15번 문제를 풀 수 있었나요?

아니죠,

필요한 부분만 이해하고 납득할 부분은 납득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LEET 언어이해도 같은 방식으로 풀려요.

불친절한 서술은 어쩌면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불친절하게 쓴 부분은 이해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이 '필요하면 설명해주겠지'라는 태도가 수능장에서 빛을 발할 겁니다.

여러분이 헛갈리고 막힐 때 떠오르면서요.

특히 작년 수능 브레턴우즈 지문처럼 배경지식 논란이 있을 때,

우리는 가볍게 무시하고 서술되지 않은 부분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평가 절상의 문맥적 추론으로 배경지식 없이 풀 수 있고요.

이 태도는 우리의 독해력의 한계를 보완해줍니다.

3. 구조독해 - 낯선 정보를 익숙함에 배열한다.

생각보다 구조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글의 내용을 사전적으로 예측하고 배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뭐...거부감이 들면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유용한 방법이니 추천은 합니다.

P-S도 좋고, Q-A도 좋고, 이항대립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구조가 아니라,
구조 속에 넣는 정보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정보의 위치를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익숙한 틀 안에 정보의 위치를 넣어두는 거니까요.

지문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틀,
그리고 문장 하나를 다루는 미시적인 도식.

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시간은 단축되고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독서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본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틀을 잡았다면, 그 이후에는 양치기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틀을 유지하는 양치기겠죠...?

이와 관련해서도 칼럼을 한 편 써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서화였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칼럼] 망하지 않는 법 1 - 피드백

2022-07-26

서화 [1157521]

안녕하세요, 서화입니다.

저번에 양치기 관련해서 글을 하나 썼는데,
양치기를 잘못하면 독이 된다는 댓글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요.

답은 간단합니다.
양에 생각이 더해지면 망하지 않아요.

무지성 양치기가 아닌,
지성 양치기를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성 양치기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 또한 단순해요.
자신의 사고를 검토해보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면 됩니다.

직접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
- ② 매튜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출수록 더 잘 읽게 된다.
- ③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 ④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⑤ 읽기 연구에서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

이번 6월 모의평가 1번 문제인데,
틀린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꼼꼼히 읽자고 다짐하고는 넘겼겠죠.

하지만 이 꼼꼼히 읽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라면 오답을 골랐던 잘못된 사고와,
정답을 고르는 올바른 사고에 각각 주목할 것 같습니다.

2번을 골라서 틀렸다고 가정해볼게요.

지문에 있는 보조사 '도'를 엄밀히 읽지 못한 게 문제네요.

1번을 옳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함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문제가 나왔네요.

보조사를 읽는 습관과 관계를 분류하는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보조사에 동그라미를 친다는 행동을 통해,
관계가 나오면 간단한 메모를 한다는 행동을 통해,
의식적으로 사고를 통제할 수 있게끔 하는 행동영역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다가 익숙해지면,
이 행동영역을 버리고 자유롭게 독해하면 되고요.

피드백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고를 검토하고 보완할 대책을 행동영역으로 만든 뒤,
적용하다가 익숙해지면 다시 버리고 자유로워지면 됩니다.

이렇게 내면화된 태도는 수능날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한 지문을 풀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듯 양과 질이 전제되어야만, 망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며 공부합시다.

[칼럼 리뷰얼] 틀 안에서,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2022-07-27

서화 [1157521]

저번 칼럼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지성 양치기가 아닌 생각하며 양치기하는 게 중요했죠.

그리고 생각하며 양치기한다는 건,
피드백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동영역을 언급한 적 있는데요.
이제부터 조금 충격적인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행동영역을 만들었다면, 이제 버리세요.

...???

애써 피드백해서 만들어낸 행동영역을 버리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틀 속에서, 틀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선 행동영역을 마련했다면 그 방식대로 연습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내면화되면, 이제는 버리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습관만으로는 수능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A->B 형식의 행동영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완벽하게 내면화되어 있던가,
현장에서의 경험에 근거한 직관이 필요합니다.

이 직관을 위해서, 행동영역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해야겠죠.
틀 안에서, 틀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규칙성 안에서의 자유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영역을 만들고, 내면화한 뒤,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현장에서의 압박을 이겨내고 당일 생각을 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자신합니다.

수능 국어 공부 순서 딱 알려준다

2022-07-27

서화 [1157521]

0. 문학 개념어를 공부하고 서술상의 특징 문제를 푼다.

1. 언매라면 개념 강의 듣고 화작도 어지간하면 들어라.
그리고 매체도 들으면 좋긴 한데 마음대로 해라.

2. 선택과목 기출을 짹 몰아서 푼다.
이제 11문제는 제대로 풀 줄 아는 기본기가 생겼다.

3. 문학 개념 강의를 들어라.
아무 강의든 어지간한 건 다 좋다. 독학서도 좋다.
중요한 건 문학 접근법과 태도를 배우는 거다.

4. 문학 기출을 1회독한다.
이때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5. 비문학은 이제 건드리는 거다.
비문학 개념 강의를 듣고 복습한다.
그러면서 문학 기출을 2회독한다.
2회독할 때에는 틀린 선지 위주로 보면서 학습한다.

6. 이비에스 운문을 공부한다.

7. 이비에스 산문을 공부한다.

8. 비문학 기출 2회독, 문학 3회독을 행한다.

9. 기출은 계속 풀면서 사설 건드리기 시작한다.
이감도 좋고 상상도 좋다.

여기까지 제대로 했다면 최소 2등급은 나온다.

10. 이제 풀고 싶다면 리트 언어이해를 푼다.
틀리든 말든 상관없으니 지문독해 위주로 푼다.

11. 수특수완 사용설명서 독서 파트만 읽는다.
배경지식은 이거면 충분하다.

12. 이제서야 실모를 풀기 시작한다.
기출 병행도 잊지 말자.

-끝-

[칼럼] 망하지 않는 법 2 - 실모 활용

2022-07-29

서화 [1157521]

*속마늘 시절 칼럼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미 봤던 내용!

실전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모를 풀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실모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더라고요.

실모의 의의는 단순히 풀고 채점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사건을 덧붙이자면, 실모는 '실전 연습'을 하기에 적합한 콘텐츠는 아닙니다.

문학은 평가원과 사설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평가원 문학을 푸는 느낌을 구현해낼 수 없어요.

평가원 문학의 느낌을 구현하려면 '깔끔한 어려움'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실모는 '깔끔함'과 '어려움'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깔끔하게 내자니 너무 쉬워지고,

어렵게 내자니 소위 말하는 더러운 문제들 내지는 문제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가원의 시간 분배를 연습하기는 살짝 애매해요.

다만 그럼에도 평가원과 비슷한 형태의 시험지를 45문제 단위로 풀어보는 경험은 의미가 있고, 실전모의고사만의 특징은 분명히 존재하기에 저는 잘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면 많이 풀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전모의고사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실모를 푸는 과정은 전제되어야 하겠죠.

실모는 평가원이 아니기에 문제와 지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 부질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실모도 사설이니 2-3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행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추가해주시면 실모를 온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문제 및 지문에 대한 분석은 무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실모에서 분석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시험 운용에 대한 분석입니다.

실모를 풀기 시작했다면 80분의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 점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앗아가는 쓸모없는 동작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간단히 저를 예시로 들자면 저는 문제가 막힐 때 넘어가는 걸 작년 6평 이전에 시도해본 적이 없어서 23번 문제 하나에서 50분을 쓴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행동인데, 충분한 연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수능 당일에 이런 짓을 할 수 있으므로 실모를 통해 거슬리는 동작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걸 목표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출 이해도가 높다는 걸 전제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설 비문학 문제의 원본을 직접 찾아내서 풀어보는 것인데요.
약점을 찾았으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연관 기출을 풀고 행동영역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설을 기준점으로 잡고 풀면 우리가 만들었던 평가원을 기준으로 한 '생각의 틀'이 무너질 수 있기에 기출로 행동영역을 점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 과정을 혼자 하기 버겁다고 느끼신다면 강사 실모의 경우 관련 기출을 수록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그걸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어느 영역을 몇 분 안에 끝내겠다는 기준을 잡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관적인 예시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화작은 날로 먹는 파트라는 인식이 팽배해서 화작은 N분 컷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해 수능에서 화작이 어렵게 나오자, 많은 조상님들이 시간 관리에서 실패했다는 압박 때문에 전반적인 시험 운용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구요.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푸는 게 아니라, 풀다 보니 일정한 시간에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풀이 순서를 시험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대신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정적으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식을 택하세요.

수능은 운의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시험이지,

행운이 올 거라고 자신하고 도박을 걸 만큼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상한선을 끌어올려서 나올 수 있는 점수대를 높인다는 발상도 좋습시다만,

우리의 시험은 단 한 번이고 그 하루에 모든 게 결정되기에 결코 운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운이 좋아서 잘 보면 이상적인 결말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유감스럽게도 수능을 망쳤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요약하자면, 실전모의고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쓸모없는 동작들을 걷어내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행동영역을 점검하면서 실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변수들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 활용하는 공부 재료입니다.

적절히만 사용한다면 하한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유용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화제 중심의 독해 - 비타민K 지문

2022-07-29

서화 [1157521]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리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1문단에서 잡아갈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혈액 응고의 정의와 화제.

특히 화제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비타민K의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서의 역할

이게 이 지문의 화제라고 친절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우리의 행동은 이제 단순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해할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줄 테니 이해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납득하면서 빠르게 화제 중심으로 독해하면 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첫 문장에서 화제를 아예 정해주네요.

혈액 응고에서의 비타민 K의 역할을 알아야겠어요.

'연쇄 반응'이라고 했으니 과정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 과정을 하나하나 기억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화제입니다.

혈액 응고에서의 비타민 K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말해주기 위해 과정이 나온 거죠.

그러면 과정은 읽으면서 그렇구나-하고 납득은 하되,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과정처럼 긴 건 나중에 돌아와서 확인해도 충분한걸요.

출제는 되니까 아예 메모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2문단까지 읽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야 합니다.

혈액 응고에서는 비타민K가 카르복실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래야 결합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고 그래야 혈액 응고가 이뤄지는구나.

혈액 응고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면 1,2문단을 중심으로 찾아야겠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 비타민 K₁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 비타민 K₂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₁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동떨어진 정보 같은 3문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화제 중심으로 엮어 독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혈액 응고 얘기하고 있던 거랑 마지막 문장을 엮어 생각해서, 비타민 K₁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놈이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화제를 또 친절하게 잡아주고 있죠?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면 원활한 순환과 관련된 거겠고, 근데 이게 칼슘의 역설하고 관련된 거래요.

그럼 칼슘의 역설도 화제랑 관련된 거니 뭔지 알아야겠네요.

읽어보니, 칼슘 보충제를 먹어도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는 걸 일컫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화제였죠? 원활한 순환하고는 무슨 관련일까요?

아하, MGP가 혈관 석회화를 억제한다는 건 원활한 순환과 관련이 있겠네요.

근데 애가 K-의존성이면 혈관 석회화 억제는 비타민 K의 기능인 원활한 순환이네요!

심지어 이걸 모를까봐 마지막에 써주는 친절한 평가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리트 언어어해는 이런 거 안 써줘요.

비타민 K₁과 K₂는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₁은 간세포에서, K₂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₁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₂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₁과 K₂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₂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비타민 K1은 혈액 응고 / 비타민 K2는 원활한 순환과 관련된 거네요.

역시 허투루 정보를 주지 않는 우리의 평가원입니다.

비타민 K2 많이 먹으라면서 지문이 끝나고 있네요.

제가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했나요?

아니죠.

저는 해야 할 생각만 해낸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글을 압도적으로 잘 읽지 않아요.

그저 화제와 엮어 필요한 부분만 이해하며, 나머지는 납득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썩과마늘, 혹은 서화였습니다.